투데이 칼럼

재난취약계층, 안전한 세상을 여는 시선

양 승 렬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어느 날 TV방송에서 착시현상을 본 적이 있다. 여인들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그림이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호수에 비친 나무모습이였다. 신기하고 재미있어 인터넷으로 착시현상에 대한 그림들을 찾아보고 트릭아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착시현상에 대한 정의는 사물을 눈으로 볼 때 사물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시각에 의해서 생기는 착각 때문에 사물을 잘못 보는 현상이다. 비단 착시현상은 그림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시각에 따라 해설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개개인의 생활환경, 습관, 시각차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간혹 이 시각차이로 언쟁이 발생하지만 결국은 해석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각의 차이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삶에 의지나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공적 부조에 기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선과 그와 반대로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공적 부조 투입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부딪친다. 양쪽 입장 중 어느 한 쪽이 선하고 악함을 판단할 수 없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각자가 받아들이는 시각과 생각의 다름이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공직의 길을 걸어 온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재난발생 요인를 자물쇠로 굳게 잠궈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소방은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호활동 외에도 사전에 방지는하는 봉사활동에도 앞장 서고 있다. 안전은 귀천이 없으며 어떤 누구나 공감하고 행복을 피부로 와닿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연장선상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화재예방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에 무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재난취약계층을 선정 방문하여 119안전복지나눔행사를 진행하면서 생필품 지급, 건강체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위험물 제거, 유해곤충이나 동?식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구조 민원을 수행 중이다. 넷째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구급대가 활동 중이다. 다섯째 급수지원, 냉각살수, 배수지원 등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단비 같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외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대민지원활동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소방대원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재난 빗장이 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등불 아래를 지켜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빛은 더 멀리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바람 앞에 등불을 지키고, 등불 아래는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빛으로 채워 온 방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보듬어 주는 넓은 가슴과 실천이 국민행복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의 터널을 걷고 있지만 이 어둠의 끝은 분명 희망의 빛이 있기에 소방은 오늘도 출동벨이 울리기 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여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자제언

즐거운 봄 행락철을 위한 자전거 안전수칙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를 타러 나온 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급증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크게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2만9,261건으로 530명의 사망자, 3만9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하루 중에서는 저녁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전체 자전거 사고의 43.2%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전체 자전거 사고의 64.4%를 차지한다.

이러한 봄 행락철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전 중에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여 야간주행에 활용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는 것도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주변상황 파악을 위하여 운전에 방해되는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운전 중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 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자전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 또한 사고의 충격을 몸으로 고스란히 받는 피해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봄 행락철이 되길 바란다.

이용민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분실품과 습득품의 중계소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습득품과 분실품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지갑이나 휴대폰 등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물건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는지 찾아보게 되고 찾지 못하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112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면 분실물과 습득물이 모두 모이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 모바일앱 LOST11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ost112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각 유실물 취급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여 접수된 분실물과 습득물을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잃어버린 당사자가 직접 분실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습득물 조회를 통하여 잃어버려 신고 된 물건을 자세히 구분하여 등록이 되고, 휴대전화의 경우 일련번호로 습득품 등록이 되므로, 분실자가 빠르게 자신이 분실함 물품을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실자가 lost112에 직접 분실물을 등록할 수 있고, 분실물이 누군가에게 습득되어서 관할 경찰서로 들어오게 된다면 분실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습득한 후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다면 관한 지구대로 꼭 인계하여 lost112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ost112가 활성화 될수록 분실품과 습득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lost112를 주변에 홍보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신용호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 설

코로나 퇴치의 희망이 보인다

코로나 퇴치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가 눈에 뜨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10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해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 확산 저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다. 연이어 하루 5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우리 한국의 그것을 넘어버렸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그런데 심각한 상태인 지금도 보건 당국의 말을 전폭적으로 먹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마스크를 낀 사람을 환자 취급을 하는 정신 태도를 끝내 바꾸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바 미국의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자며 괜찮을 것처럼 말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누적환자가 76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4만 명을 훌쩍 넘어 버렸다. 그런데도 공화당계 일부 시민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예전과 같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이래저래 반면 교사의 사례로 삼아 마땅하다.

한국이 발병 국가들 중에 모범 사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해선 안된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해도 안심해선 안된다. 계속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요구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끼면 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된다. 코로나 퇴치의 희망이 보이므로 더욱더 방역 당국과 함께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이제 전북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이제 전북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도내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때가 때인지라 주요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총선이 있었지만 이제 한숨 돌리고 지역 현안에도 눈길을 주어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챙길 것은 챙겨야 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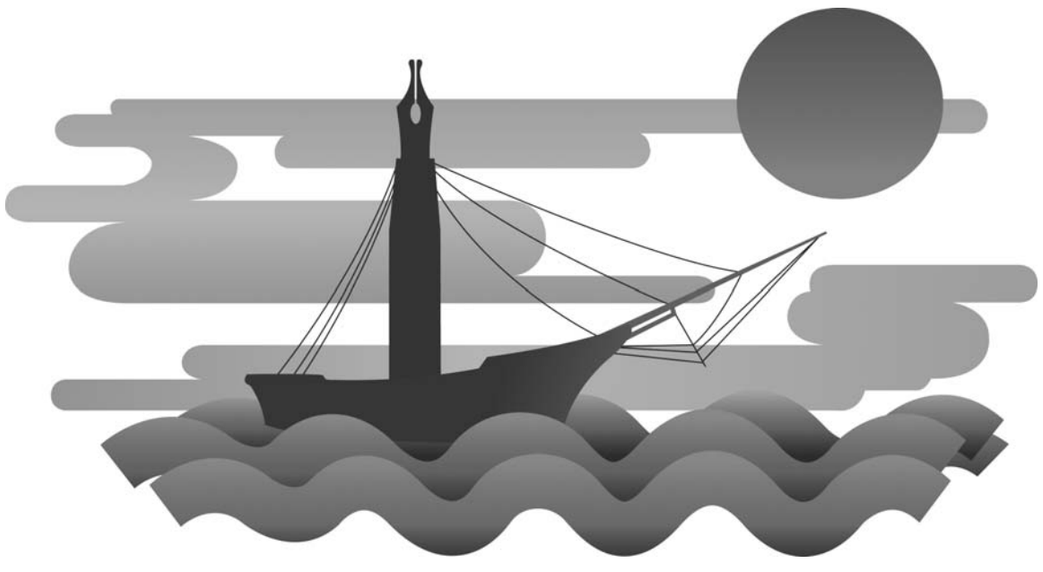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이 요원하다. 이같은 요구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잘 안풀렸을 때는 서로 네탓 공방을 했었던 까닭이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북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전북 경제 살리기를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다른 대안은 마뜩치 않다. 도민의 바람대로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요구한 그대로이다.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나날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저번에 말했던 그대로 짝사랑을 접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생산을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

이제 코로나 퇴치에 희망이 보이고 있고 총선의 결과 민심의 선택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지역 발전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책임자들보다 더 뛰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로 더욱 애쓰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